

# 이성해 대광위원장 “교통 불편 없는 신도시 약속 반드시 지켜져야”

## - 20일 남양주 왕숙·별내지구 현장 찾아 차질 없는 개선대책 이행 당부 -

- 이성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2월 20일(월) 오후 2시 남양주시 왕숙·별내지구를 방문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.
  - 남양주시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금·진건·별내지구 외에 13만명 이상을 수용하는 왕숙지구 개발도 추진되면서, 급격한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계획된 광역교통사업의 적기 이행이 무엇보다 강조되는 지역이다.
- 이 위원장은 LH 남양주사업단에 방문하여 사업담당자와 함께 지구 개발 현황 및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고, 별내역사 현장을 둘러본 후 왕숙지구로 이동하여 사업 진행 상황 등을 살펴 보았다.
  - LH 사업담당자로부터 현장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이 위원장은 “과거 광역교통사업 지연 등으로 입주 시점까지 개선대책 사업이 완료되지 못해, 다수의 신도시 주민들이 입주 초기 출·퇴근길 불편을 겪었다”고 언급하면서,
  - “입주시기를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마련하고, 수립한 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- 특히, 별내선 연장 사업 지연과 관련해서 “도시철도는 정시성과 대규모 수송력을 갖춘 광역교통의 핵심 수단인 만큼 가능한 신속하게 사업을 완료할 필요가 있다”라고 하면서,
  - 아울러, “왕숙지구도 GTX 신설, 9호선 연장 등 여러 도시철도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만큼, 기존의 사업추진방식만을 답습하지 말고,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 치밀한 고민을 담아 사업을 진행해 줄 것”을 강조 하였다.

-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“남양주 왕숙지구 등 3기 신도시에 대해 국민이 거는 기대가 크다”면서,
- “미래 입주민에게 쾌적한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대광위도 다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”을 약속하였다.

2023. 2. 20.

국토교통부 대변인